얼마만이냐…1월 광주·전남 기업 체감경기 반등

한은 광주전남본부 CBSI 조사…제조업·비제조업 모두 개선
기업 경영 애로사항, 경쟁 심화·내수부진·불확실성 順 꼽아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가 새해 들어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모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중 연달아 하락했던 지역 기업심리지수(CBSI)가 80선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29일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CBSI는 1월 기준 83.7로 전월(78.3) 대비 5.4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2003~2025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올 1월 광주·전남은 아직까지 이 같은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80선마저 무너지며 하반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역 기업경기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다만 지역 제조업계를 광주와 전남으로 구분하면 희비는 엇갈렸다. 광주 제조업 CBSI는 108.6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남은 74.4로 전국(97.5)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 제조업을 구성지수의 기여도별로 보면 업황이 0.6으로 전월 대비 0.7p 떨어졌지만, 생산(2.8), 신규수주(1.5), 제품재고(0.4) 등 대부분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생산, 제품재고, 자금사정 등 항목의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지역 비제조업 CBSI도 한달 전보다 2.9p 오른 92.4를 기록했고, 다음달 전망지수도 8.8p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98.1)는 전국 평균(91.7)을 넘어섰지만, 전남(89.3)은 아직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비제조업 CBSI는 매출과 채산성 개선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성지수 기여도별로 보면 매출이 1.7로 전월 대비 2.8p 올랐고, 채산성도 2.6p 오른 1.1을 기록했다. 이 밖에 자금사정도 0.4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광주·전남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여전히 내수부진 등을 꼽았다.

제조업의 경우 경쟁심화가 1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내수부진(17.7%), 불확실한 경제상황(15.0%)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등으로 내수부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월보다 4.1%p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지목됐다.

비제조업 기업은 내수부진이 전월보다도 1.8%p 오른 29.4%을 기록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어 인력난·인건비 부족(19.0%), 경쟁심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 출시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가입
이벤트 기간 가입자 우대금리

광주은행은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을 응원하고, 지역 상생 협력 및 균형발전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통합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상품 1호 가입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상품은 광주·전남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가입 고객에게는 별도의 조건없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6월 3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민 1인 1계좌 갖기 우대금리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최고 연 0.3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광주·전남 거주 고객 연 0.10%p, 광주·전남 통합 응원 메시지 작성 고객 연 0.10%p, 지역 내 소상공인 고객 연 0.10%p로 구성된다. 기본금리 연 0.01%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최고 연 0.31% 금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광주은행은 같은 기간 'ESG 실천 캠페인'을 통해 해당 상품 통장을 통장 미발행 방식으로 신규 개설하면 기부금을 적립해 지역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상품은 지역 정책에 대한 공감이 금융을 통해 일상 속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과 지역민을 잇는 금융 창구 역할을 확대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통합광주전남 특별시 사랑통장' 가입서를 작성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지난해 인구 순유출률 전국 최고

지난해 광주 인구 순유출률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는 총전입 16만 3000명, 총전출 17만 7000명으로 한 해 동안 지역민 1만 3700명이 순유출됐다.

광주시 전체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9만 2013명으로, 순유출률은 1.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유출률로 2위인 제주(-0.6%)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는 순유출 인구수도 서울(-2만 7000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였다. 이어 부산(-1만 2000명), 경북(-9000명), 경남(-8000명) 등 11개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반면 경기(3만 3000명), 인천(3만 2000명), 충북(1만 1000명), 전남(1000명) 등 6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지역 인구가 20·30대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매년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은 빛가람혁신도시와 귀농·귀어인 유입 등을 통해 소폭 인구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광주는 10세 미만(100명)과 80세 이상(300명)에서만 인구가 소폭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가 순유출됐다.

연령별로 20대(-5200명), 40~50대(-3300명), 30대(-2800명) 등 경제활동인구에서 순유출 인구가 많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현대차·기아, 합산매출 300조 시대…영업익은 23.6%↓

미 관세로 7조2000억원 부담

현대차그룹의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합산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다.

'매출 300조 시대'의 개막에도 지난해 미국 관세로 총 7조2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하락했다. 현대차는 29일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1조4679억원으로 전년보다 19.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25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실적을 발표한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수치다. 기아 역시 지난해 매출이 역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은 300조3954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20조54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6.3% 늘고, 영업이익은 23.6% 줄었다.

현대차·기아의 합산 매출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 현대차, 기아는 각 사에 이어 합산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됐던 25%의 미국 자동차 관세가 11월부터 15%로 낮아졌는데도, 재고 가격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현대차·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총 7조2000억원(현대차 4조1000억원·기아 3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조3607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관세 비용이 없었을 시 현대차·기아가 전년에 이어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해나 기자 khn@

롯데백화점 광주점 명절 우량고객 특별 우대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설날을 앞두고 명절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인 '롯데 기프트 클럽'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월 15일까지 롯데 기프트 클럽을 운영한다. 해당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행사 기간 중 식품 선물세트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금액 구간별 5~7% 상품권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작년 역대 최대 매출…분기 영업익 20조 고지

1조 3000억원 규모 특별배당

삼성전자가 고부가 메모리와 메모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5년 만에 1조 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도 실시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025년 4분기 매출 93조 8000억원, 영업이익 20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65% 증가했다.

실적 개선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이끌었다. DS 부문은 매출 44조원, 영업이익 16조 4000억원을 기록하며 메모리 중심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DR5(Double Data Rate 5),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효했다.

반면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경쟁 심화 영향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줄었다. 다만 기업이 내세우는 '플래그십' 제품과 태블릿·웨어러블의 안정적 판매로 연간 기준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했다. 디스플레이와 하만 부문도 스마트폰·전장 수요 회복에 힘입어 비교적 탄탄한 실적을 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도 인공지능(AI)과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DS 부문은 HBM과 AI용 고부가 메모리 판매를 확대하고 파운드리는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대형 고객사 수주를 늘릴 계획이다. DX 부문에서는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와 AI 기능 강화로 수익성 회복에 주력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5년 만에 특별배당도 단행한다. 삼성전자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566원, 56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 7534억원 규모로 정기 분기 배당에 특별배당 1조3000억원이 더해졌다.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 1000억원에 달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상조업체 폐업 대비 하려면 주소 변경 알려야

3년 지나면 채권 소멸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자가 주소 변경을 업체에 잘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가입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보상 기간이 지나 거부당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

해당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보상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보전기관은 가입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폐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채권 행사 기간은 3년이라서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에 가입할 때는 업체의 영업 상태 외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라고 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환율부담 완화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 등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고환율 장기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 만기의 연장을 검토한다. 환율 상승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환리스크(위험) 지원도 늘린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을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환리스크 지원사업 전반의 지원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연간 1천건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원자재 연동 약정 체결을 확산하기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늘려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고환율 관련 현장 애로를 상시 파악하고,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환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이런 지원방안은 이날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바탕이 됐다.

간담회에서 제조·유통·식품 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원부자재 수입·공급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환율로 인한 현장 애로를 공유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를 항상 청취하면서 환율 피해를 극복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221.25 (+50.44)
↑ 코스닥	1164.41 (+30.89)
↑ 금리 (국고채 3년)	3.106 (+0.039)
↑ 환율 (US D)	1430.90 (+8.40)

<오후 5시 33분 기준>